

人文論叢

80권 1호

2023년 2월

서평

www.kci.go.kr

오상순, ‘기인’의 풍문을 넘어 ‘시(인)’의 진실로

최현식*

[서평] 이은지 엮음(2022), 『공초 오상순 전집』,
소명출판, 720쪽

1. ‘오상순’ 시집이 문제시되는 까닭

오상순(1894~1963)은 근대문학 최초의 동인지 『창조』에 필적하는 『폐허』의 동인으로 이름 높다. 그는 『폐허』에 ‘성해’(星海)라는 필명 아래 주목할 만한 시와 산문을 발표하면서 식민지조선(과 문단)에 “부활의 서광”을 비추고 “위대한 미래”를 ‘창조’[「시대고(時代苦)와 희생」]하는 데 지혜와 힘을 더하고자 했다. 물론 『폐허』 당시 시인의 글쓰기는 어휘 구사가 생경하고 정서의 습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약점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왜냐하면 내면세계를 향한 눈길을 지녔으며, 일상생활에 밀착하기보다 ‘관념적인 것’을 여러 개의 관점에서 감각화시키는 태도와 방법을 취했기 때문이다.¹ 이를테면 시인은 당시 ‘허무혼’, ‘폐허의 제단’, ‘방랑의 마음’, ‘환몽시’, ‘백일몽’ 등의 시어를 집중적으로 제출했다. 이 말들은 식민지 조선의 불우한 현실에 대해 깊이 호흡하기보다는 그것과 격절된 현실 초월의 시선과 태도, 특히 ‘허무’와 ‘방랑’을 시인 평생의 이미지로 각인하는 기초가 되었다.

이런 정황 때문인지 시인은 오랫동안 단독시집을 내지 못한 채 단속(斷

* 인하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1 김용직(1986), 『한국근대시사』(상), 학연사, pp. 161-167.

續)적인 글쓰기를 몇 차례 통과하며 시인의 본분을 지켜 나갈 수밖에 없었다. 물론 시인은 ‘허무’와 ‘방랑’을 현실 패배와 좌절의 결과물이 아니라 자신의 ‘코스모폴리탄’ 의식과 ‘퓨리타니즘’이 뜨겁게 팽창시킨 철저한 ‘자유인’의 행동으로 간주했다.² 당시의 글쓰기에서 니체의 ‘생의 철학’과 ‘고통’과 ‘창조’가 뒤엉켜 등장한다거나, 모든 것에 구속되지 않는 ‘자유인’의 삶이 집중적으로 부각된 것도 그 때문이었다.

‘진정한 자유인’³에의 의지는 그러나 아호 ‘공초’(空超)가 암시하듯이 현실초월의 욕망 맞은편에 타자의 눈에는 무가치해 보이는 (‘담배’)공초의 삶을 작란(作亂)하는 시선과 태도를 불러들이는 또 다른 원인이 된다. 아무려나 그는 ‘기인’(奇人 / 棄人)을 자처하며 두주불사와 줄담배, 기상천외의 말과 행동을 한시도 멈추지 않았으며, 또한 거기서 “영원회전의 원리”[「영원회전(永遠回轉)의 원리」]를 발견하고 구가하는 것을 시와 삶의 궁극적 목표로 삼았던 것이다. 과연 시인의 ‘자유인’의 의지와 ‘무소유’의 삶은 여러 분야의 후배들이 그를 “무일푼(無一分), 무일물(無一物)로 종신”한 “크나큰 흐름의 시인”, “초논리의 사상가”, “무교리의 종교가”⁴로 승엄화하는 토대가 되었다.

그렇지만 예의 명성에 비하면 ‘시인’ 오상순을 처음 세상에 알렸고 마지막까지 기억케 할 ‘시’(문학) 전집의 편찬은 꽤나 소소한 편이라 적잖이 아쉽다. 그의 시와 산문이 한데 모여 대중의 손에 처음 건네진 저작으로는 『공초 오상순 시선』(자유문화사, 1963, 이하 1963년판)을 들어야 한다. 이 시선집은 평판작 「허무혼의 선언」과 「아시아의 마지막 밤 풍경」을 1부와 2부의

-
- 2 김용성(1983), 「‘아시아의 밤’을 노래한 선객, 공초 오상순」, 신경림 외, 『한국의 괴짜들』, 영인문화사, p. 215.
 - 3 오상순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많은 이들은 ‘허무’와 ‘방랑’ 못지않게 ‘무소유’와 ‘자유’의 지, ‘불교정신’을 그의 시심과 삶의 요체로 파악했다. 이에 대해서는 구상 편(1988), 『현대한국의 초인 시인 공초 오상순』, 자유문화사 및 이승화(2020), 『진정한 자유인 공초 오상순』, 나남 참조.
 - 4 구상(1984), 「우리 어디서 만나라」, 정공채, 『공초 오상순 평전: 우리 어디서 만나라』, 백양출판사, p. 7.

제목으로 내세운 것을 시작으로 총 6부 36편의 시를 실었다. 더불어 「짜 읽은 거위를 곡(哭)하노라」를 포함한 산문 2편도 잊지 않았다. 『공초 오상순 시선』의 책임 편집은 후배시인 구상(具常)의 몫이었는데, 이 선집의 출간을 앞두고 오상순은 생사의 기로를 넘나들고 있었다. 구상은 오상순 시의 가치나 편찬 과정을 적는 대신 그의 삶과 시를 “저 비할 길 없는 생의 완수(完遂)”라고 갈무리지음으로써 존경과 애도의 염(念)을 함께 표했다.

구상 시인은 오상순 시인의 사후 20년 뒤 자신을 편자로 내세워 『공초 오상순 시전집 아시아의 마지막 밤 풍경』(한국문학사, 1983, 이하 1983년판)을 출간했다. 그는 새로 편찬한 시 전집의 최고 가치로 한국현대시사에서 오상순의 작품만큼 “형이상학적 인식의 주제나 그것을 강렬하게 표상화한 시는 없”었다는 점에 두었다. 그는 시 전집의 초판본으로 『공초 오상순 시선』을 활용했다고 밝혔는데, 실제로 두어 곳을 제외하곤 실린 순서나 작품이 동일했다. 예컨대 1963년판의 ‘[3] 단장(斷章)’ 6편이 1983년판 ‘[7] 단장’ 23편으로 확장되었다. 가장 큰 차이라면, 시 전집에 ‘[6] 녹원(鹿苑)의 여명(黎明)’ 12편과 산문 「시대고와 희생」, 「종교와 예술」이 처음 실렸으며, 시인의 생애를 짧게 기록한 「공초 오상순 연보」도 더해졌다. 이 시 전집은 그간 발굴 또는 수록되지 못했던 시 29편과 산문 1편이 새로 추가되었고, 공식적 연보가 제공된 덕분에 이후 오상순 문학의 기초 저본이자 정전(正典) 역할을 자임하게 된다.

그러나 두 판본은 엄밀히 말해 ‘완성본’이나 ‘정전’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저명한 후배시인이 편자로 참여했지만, 오상순의 시와 산문을 모아 놓은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원본 대조 및 정보 확정의 과정과 방법, 원전의 편집과 표기, 구성과 배열 원칙 등을 알리는 ‘일러두기’, 원칙에 대한 독자의 이해와 편의를 위한 ‘날말풀이’, 역사·전기비평이나 원전비평의 주요 근거가 되는 세밀한 작가와 작품 연보 등이 모두 빠져 있다. 물론 이러한 서평자의 판단과 비평은 원전과 정전의 상호 대화 및 그 맥락의 해석, 시공간을 달리하여 주어지는 판본 연구의 객관성

과 전문성 등이 두루 고려되는 오늘날의 전집 편찬 과정을 앞세워 수행되고 있는 것이긴 하다.

그렇지만 ‘전집’에서 ‘전집’으로 그 명칭과 가치가 전환되는 시점이 20주년을 맞이했음에도 미수록작 수십 편을 더하고 각 부의 구성을 약간 바꾸는 정도에 그쳤다는 것은 매우 문제적이다. 이러한 결핍은 편자의 안이함과 불성실함을 넘어 현실 저편에서 여전히 시혼을 불태우고 있을 ‘영원한 시인 오상순’에 대한 비례(非禮)로까지 여겨진다. 시 전집의 미비함은 결국 오상순 문학에 대한 소외 현상과 학술연구의 저조함을 불러들이는 주요한 까닭으로 작동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실제로 ‘학술정보연구정보서비스(RISS)’상에 ‘오상순’을 입력해 보면 학위논문을 포함한 학술논문의 수효가 30여 편 남짓에 그치고 있다.⁵ 연구의 왜소화는 식민현실과 분단체제를 관통해 간 오상순 시학의 미학적·언어적 모험, 현실의 패배와 위기에 맞서는 어떤 시선과 태도, 새 시대 탐색과 개척에 소용된 종교적·윤리적 사상의 모색과 실천 등에 대한 정당한 관찰과 해석, 가치화의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았음을 뜻한다. 이 점, ‘오상순 전집’의 새로운 발간 및 그간의 성과를 넘어서는 지혜로운 연구의 출현이 새삼 소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첫 번째 필요조건이었다.

2. 『공초 오상순 전집』이 새로 찾고 이룬 것들

2022년 4월 소장 연구자 이은지(이하 ‘엮은이’) 박사는 오상순 문학 및 그 연구의 토대 확충에 획을 그을 만한 성과를 내놓았으니 『공초 오상순 전집』이 그것이다. ‘시 전집’ 아닌 ‘전집’이라는 제목의 선택은 본 저작이 ‘오상순

5 구상 편(1988), 『현대한국의 초인 시인 공초 오상순』(자유문학사)에는 8편의 학술논문이 실려 있다. 저명한 연구자의 논저로는 고(故) 김윤식 교수의 「허무에서 해바라기」가 눈에 띄는 따름이다.

문학' 전체를 초점화했음을 뜻한다. 그랬음은 수집된 자료의 양적 측면에서 바로 드러나는데, 율은이는 시 95편과 산문 51편을 합친 총 146편을 각각 현대어와 영인본으로 나눠 수록했다. 시인 구상이 율은 기존의 시 전집에 비해 시 30편, 산문 46편이 더 추가된 분량이다. 잊힌 작품의 확인과 수집에 들었을 바지런한 발품과 판본 구성시의 굵은 땀방울은, 원전의 탐방과 목도가 미덕 아닌 의무로 여겨지던 1990년대 서평자의 수업시대를 떠올려 보면 매우 대견하고 믿음직스런 것임에 틀림없다. 그 결과 한국문단은 비록 “‘완전’한 모음집”은 아닐지라도 전문연구자에게는 ‘중간결산’의 의미로, 대중독자에게는 “찾아보기 편하고 신뢰할 만한 기초자료”⁶로 『공초 오상순 전집』을 손 안에 넣게 된 것이다. 이럴 경우 서평자의 첫 임무는 젊은 연구자의 겸양과 자신감을 전집 내부에서 확인하고, 그것이 오상순 시학의 원형 찾기와 새로운 가치화에 미칠 몇몇 요소를 살펴보는 작업에 주어질 수밖에 없다.

먼저 『공초 오상순 전집』이 거둔 핵심적 성과로는 무엇을 들어야 할까. 길게는 100여 년, 짧게는 80여 년 동안 그 존재와 실체를 몰랐거나 새로 발굴되었지만 전집 수록의 기회가 없었던 시 20편과 산문 35편(율은이 시 8편, 산문 23편 발굴)을 수록하게 된 것이 첫손에 꼽힌다. 해당 작품들이 버려지거나 기존 전집에 수록되지 못한 까닭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추측된다. 하나는 복잡다단한 시대현실 속에서 그 존재가 잊히거나 망실(亡失)의 불우를 면치 못한 경우다. 다른 하나는 1963년판과 1983년판의 출간을 주도한 시인 구상 중심의 편집진이 시인의 동의를 얻어 의도적으로 제외한 경우이다. 동료 문인에 바쳐진 조문(弔問) 시, 새해맞이의 시, 오상순의 주류적 사상이나 관심 주제에서 벗어난 시 등이 여기 속한다.

그러나 율은이의 통찰처럼 특히 「폐허의 봄」(1924), 「향수」(1932) 등은

6 증보된 오상순 시와 산문의 편수, 전집 출간의 의의에 대한 개인적 고백은 이은지(2022), 「책머리에: 전집 발간의 의의」, 오상순, 이은지 편, 『공초 오상순 전집』, 소명출판, pp. 5-8 참조. 앞으로 이 전집에서 인용할 경우에는 인용면을 괄호에 넣어 본문에 직접 표기한다.

시작 활동의 첫 공백기인 1925~1934년의 빈틈을 메워 주는 역할(p. 7)을 담당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획기적 발견에 해당된다. 전자는 『폐허』 활동 당시 ‘허무’와 ‘방랑’의 영육(靈肉)을 파고들던 ‘폐허’ 의식 속에서 “향기로운 봄”을 담은 “비장(秘藏)의 술잔”을 찾아 나서는 긍정적인 ‘떠돌이’ 의식을 부조하고 있다. 후자는 “향수에 여위는 나의 마음”과 “숨길 뉘는 나의 생명”을 한탄하는 소극적 니힐리즘을 넘어 “거룩한 미(美)에 영원히 빛나올” “당신의 낮”을 뵈는 것에 목숨을 거는(“만약 그렇지 않다면 / 나에게 죽음을 허락하소서 / 푸른 비수 이사오니!”) 적극적 니힐리즘을 토로하고 있다.

‘폐허’에서 ‘생명’과 ‘영원’으로 나아가는 두 시의 면모는 “영구한 죽음”에 강박된 “황량한 폐허”를 딛고 끝내는 그 “폐허를 덮는 무성한 생명수”(「시대고와 그 희생」)로 성장하기를 염원했던 오상순의 『폐허』 시대를 고스란히 반영재현하고 있다. 이때의 ‘죽음’에 대한 의지는 자기 존재의 비약과 확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희생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⁷는 역설적 생명 의식과 결코 다르지 않다. 「폐허의 봄」과 「향수」는 ‘허무’와 그에 따른 ‘방랑’이 세계의 확장의 원동력이자 자아의 ‘영원회전’을 가능케 하는 비장의 원리⁸임을 다시 강조하고 확인하는 내적 성숙의 기호임이 여기서 분명해진다.

다음으로 『공초 오상순 전집』에서 꼭 주목할 사항은 첫 텍스트의 언어 확보와 역사성 보전을 위한 원전(原典) 수집과 독서대중의 편의를 보장하는 현대어로의 전환이다. 엮은이를 이를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취했다. 하나는 현재의 표기와 문법 등에서 이질성이 확인되는 옛 텍스트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현대어 사용과 한글 전환을 전면화하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시작품의 원문 표기”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첫 텍스트의 ‘영인(影印)

7 이철호(2006),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과 종교적 자아 담론: 영(靈), 생명, 신인 담론의 전개 양상을 중심으로」, 동국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69.

8 김민지(2021), 「1920년대 한국 현대시의 정동 시학: 황석우, 오상순, 이장희 시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95.

이미지'를 제공하는 것이었다(『일러두기』, p. 2). 많은 공력과 시간을 필요로 했을 이중 작업은 시인의 고유한 시혼과 언어의 확보와 더불어 그것의 현대적 재현과 전달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와 가치가 각별하다.

사실 '전집'의 언어 표기를 발표 당시의 '조선어'로 할 것인가 아니면 현대 '한국어', 바꿔 말해 '표준어'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의외로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엄밀히 말해 최초 텍스트의 언어와 표기는 누구 하나의 것이 아니었다. 거기에는 시인의 고유한 언어 관습과 표기의 원칙이 알게 모르게 담겨 있다. 게다가 오상순의 글쓰기가 본격화되던 1920년대 초반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이 제안되지도 않았던 때였다. 그런 만큼 출판사마다 맞춤법이 달라도 전혀 문제시되지 않을 정도로 표기의 자의성과 혼란함이 가중되던 시절이었던 것이다. 또한 일본어는 필수 국어로, 조선어는 선택의 지방어로 취급되는 시대였으며, 서구 번역어는 제국어로서 일본어의 영향과 압력 아래 놓여 있던 시절이었다. 당시의 오상순 시에서 토속어와 민족어로서 '조선어'의 사이사이에 어려운 한자의 관념어와 외국어 발음을 그대로 적은 박래(舶來)의 단어들, 적잖이 박혀 있는 것도 이러한 사정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공초 오상순 전집』에 대한 또 다른 서평자의 “오상순 시의 에크리튀르에서 드러나는 소리와 문자, 음성과 표기 사이의 관계성”⁹이라는 문제의식은 단순히 최초 텍스트와 현대의 표준어 텍스트에만 해당될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엮은이는 이 문제의 복잡성을 해결하거나 피하기 위해, 또 오상순 시의 고유성을 되살리는 한편 현대 독자의 편의성을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했다. 이를테면 원전 확인(영인본)과 가독성 확보(현대어), 한글 우선과 괄호 속 한자 병기, 원전의 강조 표시, 곧 강조점과 밑줄 등의 계승, 오기된 원문의 현대어 수정, 현대어와 다른 원문의 어감

9 홍성희(2022), 「“상상의 날개”로 땅에 머물기: 오상순 시의 음성주의와 ‘역천’의 상상력」, 『민족문학사연구』 80, 민족문학사학회, p. 324.

확보를 위한 맞춤법의 위반 등이 구체적 실례에 해당된다(「일러두기」, p. 2).

엮은이는 발표나 전집의 출간 시마다 변형을 거듭하는 조선어≒한국어의 ‘에크리튀르’를 제시하고 확증하기 위해 시대별로 표기와 문장 형식이 달라지는 3가지의 「방랑의 마음」을 예시함(p. 5)으로써 자신의 주장과 견해에 호소력을 더했다. 만약 「방랑의 마음」에 예시된 표기의 변화와 다른 언어의 선택에 오상순의 의지와 욕망이 계속 개입되었다면 그것은 단순한 개작의 상황을 넘어선다. 홍성희의 예리한 분석처럼 같고도 다른 「방랑의 마음」의 세 형식은 ‘글의 뜻’과 동일시되거나 그것마저 넘어서려는 ‘말의 뜻’을 정확하고 풍요롭게 집행하겠다는 ‘음성중심주의’의 산물임이 분명해진다.¹⁰

한편 「방랑의 마음」은 서로 다른 형식과 내용으로 변화를 거듭했다는 점에서만 문제시되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방랑의 마음」에 대해 시도된 엮은이의 ‘원전(原典) 비평’은 여러모로 시사적이며 뜻깊다. 엮은이에 의하면 1963년판과 1983년판 공히 첫 텍스트 「방랑의 마음」(『조선문단』, 1935. 8.)을 「방랑의 마음·1」과 「방랑의 마음·2」로 나누어 실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 잘못된 관련 텍스트의 수집과 비교, 착오가 발생한 지점의 제시, 세 텍스트가 실린 『조선문단』, 1963년판 선집, 1983년판 전집의 이미지 재현(영인)과 병렬적 배치를 통해 착실하게 확인되고 있다(pp. 4-5). 이것은 『조선문단』 발표본이 다시 원전으로 되돌려져야 함을 뜻하며, 그 분리의 까닭이 명쾌히 제시되지 않는 한 지금까지 한 편의 지위를 차지해 온 「방랑의 마음」 1과 2의 독립성이 박탈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편자의 의도가 지나치게 반영되거나 개입된 것으로 추측되는 「방랑의 마음」에 관련된 자의적인 텍스트 분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남긴다. 전집을 구성하고 발간할 때 작품 자체의 사실성과 영향력, 여러 판본에 대한 정확한 비교와 가장 타당한 정전(正典)의 확정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윤리이자 의무에 해당된다는 사실이 그

것이다.

마지막으로 작가와 작품에 대한 구체적 사실과 정보를 제공하는 「작가 연보」와 「작품 연보」에 관련된 사항이다. 연구자와 독자는 두 자료를 통해 시적 주체의 삶과 생활, 작품의 기원과 출처, 작품 발표나 시집 출간 당시 벌어진 개인과 텍스트의 현실적 정황과 미학적 맥락을 요약적으로 이해하고 파악되게 된다. 이런 까닭에 기존의 오상순 시선과 전집도 그것들 나름의 새롭고 풍요로운 '작가·작품 연보'를 구성하고 제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1963년판은 「작품 연보」를 생략한 채 작가의 탄생과 사망 날짜, 일본 유학 경력, 『폐허』 동인 활동, 여러 학교에서의 교원 활동 경력, 훈장 수훈 등의 사실만 간략하게 제시했다. 이로 인해 작가와 작품의 상관성을 파악하는 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 1983년 판도 사정은 비슷하다. 구상이 총괄책임을 맡았던 만큼 개인적 삶과 작품 활동에 대한 얼마간의 덧붙임이 눈에 띈 따름이다. 이 정도의 정보로는 시인의 전기적 생애가 문학 활동에 어떤 영향을 끼쳤고 그것이 작품 속에 어떻게 수렴되었는가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런 만큼 한국의 근대문학을 열어젖힌 『폐허』의 동인에서 종교적 감각과 윤리에 '영원윤희'의 탐구로 나아간 오상순 시학의 미학적 평판과 영향력에 대한 객관적 파악과 측정도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그렇다면 『공초 오상순 전집』의 경우는 어떻게? 「작품 연보」는 기존의 작품과 새로 발굴된 작품을 발표 순서대로 나열해 놓았다는 점에서 수량의 차이를 제외하고 1983년판과 대동소이하다. 하지만 엮은이는 기존의 전집을 답습하여 그것을 똑같이 옮기는 태도나 방법과는 처음부터 거리를 두었다. 그 대신 작품 발표 당시의 지면을 가능한 한 모두 확인하고자 했으며 최초의 지면이 부재할 때는 1963년판과 1983년판을 참고함으로써 텍스트의 출처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감을 높였다. 이러한 노력은 「작가 연보」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된다. 엮은이는 시인의 문학 활동을 보도한 각종 신문기사, 정보량이 가장 풍부하고 그것에 대한 신뢰성이 높은 정공채의 '오상순

평전', 시인의 문학과 사상의 관계를 치밀하게 논구한 박윤희의 학위논문¹¹을 토대로 작가의 실제 삶과 문학적 생애를 풍요롭게 재구성해 냈다.

정공채와 박윤희의 정보는 그러나 시인의 유년 시절을 필두로 개인적인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라 문학 활동에 대한 공식적 보고와 기록에서 약세를 면치 못한다. 물론 다음과 같은 정공채의 보고는 오상순 문학 연구의 한 전기를 마련하는 물질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첫째, 1926년 불교 고승들과의 폭넓은 대화와 깊이 있는 참선 활동에 대한 보고, 둘째, 1930년 중국으로 건너가 베이징, 쑤저우(蘇州), 항저우(杭州), 칭다오(靑島) 등을 주유하며 루쉰(魯迅)의 아우로 중국문단을 호령하던 저우쭈어런(周作人)을 만난 사실에 대한 알림이 그것이다.¹² 두 경험은 오상순 시학의 후반에 이르기까지 깊은 영향을 끼치는데, 엮은이가 주목한 오상순의 우주적 문제로서 '생명의 비밀'에 대한 천착(p. 590)도 이와 관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엮은이는 이 약점을 실물이든 디지털 자료든 각종 신문지상에 게재된 오상순의 삶과 문학 활동을 한데 모음으로써 지혜롭게 극복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 '시인' 오상순의 활동만큼은 『공초 오상순 전집』에 제시된 것을 따라올 수 없다는 강력한 신뢰감이 형성되고 확장된다. 그뿐만 아니라 신문지상에 기록된 오상순의 문학 활동은 그가 속했던 문학 단체와 동조자들의 사상적·이념적 경향, 당대 현실에 대한 그들의 대응 방식과 결과 등도 충실히 알려준다. 이 사실들을 읽어 보는 것만으로도 오상순 개인의 동일성이나 어떤 변화를 넘어 근현대의 격동적인 '문학소사(小史)'를 인지하고 파악하는 데 적잖은 도움이 된다. 엮은이가 「작가 연보」를 통해 오상순 개인과 시대사적 현실의 흥분된 대화 및 차가운 균열의 여러 국면을 재현하는 데 열

11 박允姬(2009), 「吳相淳의文學と思想: 1920年代, 東アジアの知的往還」, 京都造形芸術大学博士論文.

12 정공채(1984), 「공초 오상순 연보」, 『공초 오상순 평전: 우리 어디서 만나랴』, 백양출판사, p. 312.

마간 성공하고 있다는 판단은 그래서 가능해진다.

3. 『공초 오상순 전집』이 놓친 아쉬운 항목들

활동이 왕성한 문인일수록 전집의 편찬은 여러 난점들을 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엄격히 말해 발표되거나 망실된 모든 작품의 수집과 발굴은 기초 작업에 지나지 않는다. 전집의 성과와 영향력의 지표는 작품(텍스트)의 정확하고 풍부한 역사와 정보, 그것들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해석이 가능한 도구와 틀의 제시 여부에 따라 판가름이 난다. 이 때문에 전집의 편집과 출간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역사·전기적 비평'과 '원전비평'은 텍스트의 정확성과 역사성, 작품 창작과 출간에 관련된 문화적 관습과 언어 상황, 작가의 삶과 창작 환경, 원전과 이후 판본의 비교와 평가 등에 심혈을 기울인다. 『공초 오상순 시선』이 작품의 역사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은 앞서의 장에서 이미 확인했다.

한편 전집을 발간할 때 출판사의 호의와 관심은 필요충분조건일 수밖에 없다. 전집의 상황이 경제성을 넘어설 정도의 분량이거나 대중의 관심과 판매의 영향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경이라면 출판사의 걱정을 아주 모른 채 하기는 꽤나 어렵다. 판매량을 고려하는 출판사의 입장에 서게 되면, 위은이는 전집의 밀도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항목 몇몇을 접어 둘 수밖에 없게 된다. 실제로 『공초 오상순 전집』도 단권 720쪽에 달하는 묵직한 분량으로 출간되었다. 완성도 제고에 필요했을 몇몇 요소들이 불가피하게 제외되었다면, 그 까닭의 하나로 전집의 분량도 한뼘했을 것이다. 만약 이와 사정이 다르다면, 위은이는 출판사의 협조를 구해서 전집을 2권 정도로 구성했어도 괜찮았을 듯하다. 그랬더라면 작품과 영인 자료, 해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배치하며 아래에 제시된 미비점들에 대한 충분한 관찰과 더 나아가 서술도 가능했을 것이다.

첫째, 『공초 오상순 전집』에서는 엮은이가 참조한 『공초 오상순 시선』과 『공초 오상순 시전집 아시아의 마지막 밤 풍경』에 대한 비평적 성찰의 흔적이 거의 엿보이지 않는다. 엮은이는 「책머리에: 전집 발간의 의의」에 두 저작에 실린 작품 편수를 밝히는 한편 처음 실린 ‘작가연보’의 의의와 처음 시도된 ‘시 전집’이라는 명칭의 가치를 간략히 서술했을 따름이다. 후배시인 구상이 편찬을 주도한 두 저작은 텍스트를 발표 또는 게재의 시기나 순서에 따라 배열하지 않았다. 편자는 1963년판은 총 6부로, 1983년판은 총 7부로 나누어 텍스트를 구성, 배치했는데, 이때의 기준은 시기와 주제상의 유사성이나 가족 관계의 형성 여부였다. 또한 각 부의 명칭은 열정적 독자라면 한 번쯤 들어 봤을 법한 오상순의 대표작에서 선택함으로써 그 관심도와 친밀도를 한층 높이는 전략을 구사했다.

물론 오상순이 병상에 있었거나 사후 20년 뒤에 다시 수행된 선집과 전집의 출간이라는 점에서 작품의 선택과 배치, 순서의 제시와 각 부의 구성은 편자의 감각과 의중에 따라 수행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오상순과 구상의 인간적 친밀도와 사제지간에 준하는 문학적 영향 관계는 두 판본에 오상순의 생각과 판단이 어떤 식으로든 반영되었을 것임을 짐작케 한다. 이 때문이라도 『공초 오상순 전집』의 머리말이나 해제 등에 두 저작의 구성과 배치에 대한 비평적 검토와 해석이 제시되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짙게 남는다. 만약 이 작업이 이뤄졌다면 전문연구자와 독자대중은 오상순 전집 편찬과 발간의 역사성, 편자들의 전집 편찬 의도와 방법의 차이점, 시대별 시인-편자-독자의 만남과 대화의 유사성과 상이함을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에 많은 도움을 얻었을 것이다.

둘째, 대개의 문학 전집은 어떤 식으로든 작품의 이해에 도움이 되고, 현대어나 표준어와는 다른 언어의 맥락과 변화를 알려주는 ‘날말 풀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공초 오상순 전집』도 간단하게나마 이 작업을 수행하여 연구자와 대중독자에게 텍스트 이해와 해석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다. 그렇긴 해도 ‘날말 풀이’의 수효나 새로움은 크게 눈에 띄는 바 없이 단

출하다. 이러한 사정은 어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오상순은 서울에서 출생, 성장했으며, 일본 교토의 기독교 계열 교육기관인 도시샤(同志社)대학에서 유학 생활을 했다. 이러한 언어적·교육적 배경은 오상순이 한·일 양국 모두에서 민족어든 서구어든, 또 그것의 번역어든 이후 공식적·제도적으로 '표준어'의 지위를 획득할 잠정적 '현대어'의 발화자이자 기록자로 성장하고 생활했음을 뜻한다. 그런 만큼 표준어에 익숙한 연구자와 독자라면 시대적 환경과 언어 정책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발음과 쓰기의 변화 및 편차 정도가 오상순의 시에서 낫설었을 뿐 원래의 뜻과 맥락의 이해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된다. 결국 '표준어'의 잠재적·실질적 발화자를 통시적으로 살아간 오상순의 언어적 배경과 쓰기의 능력이 독자의 '리터러시'(literacy) 능력의 수월한 발휘에도 적잖은 힘이 되어 준 셈이다.

그렇지만 오상순의 '표준어' 발화와 구사가 엮은이의 단출한 '낱말 풀이'에 대한 정당한 알리바이를 형성하지는 않는다. 가령 엮은이는 표기의 측면에서 '현대어'에서 찾아보기 어렵거나 예전에는 자주 쓰이다가 '죽은 말'이 되다시피 한 단어들에는 “현대어 의미가 불분명하여 발표 당시 지면대로 표기함”이라는 주석을 달아 놓았다. 엮은이는 아마도 뜻과 표기가 불분명한 말들의 정확한 의미를 찾고 이해하기 위해 여러 곳에서 출판된 몇 권의 한국어 사전을 부지런히 뒤적였을 것이다. 만약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는 말이라면, 연구자가 취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은 시 전체나 문장의 맥락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그 소통과 이해의 가능성을 높이는 일일 것이다.

가령 엮은이는 “두 손으로 어루만지며 / 그 위에 눈물 떨치는 처녀!”[“무정”(無情)]라는 시행에서 그 쓰임과 이해가 불분명한 단어로 “떨치는”을 선택, “현대어 의미가 불분명하여 발표 당시 지면대로 표기함”(p. 38)이라는 주석을 붙여 두었다. 그러나 제목 “무정”, 시구 “같이 우는 수밖에 —” 등을 참조하면 “떨치는”의 뜻은 비교적 분명해진다. 아마도 ‘떨구는’이나 ‘떨어뜨리는’ 정도가 본뜻이 될 것이다. 시인은 눈물을 살며시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격정에 사로잡혀 눈물이 솟구침과 동시에 떨어지는 모습을 강조하기 위

해 복합적 동사 “뺏치는”을 끌어다 쓰거나 아예 새로 고안하여 활용한 것인 지도 모른다. 특정 시인의 ‘전집’을 편찬할 정도의 능력과 열정을 가진 연구자라면 때로는 말의 무덤이나 빈터로 돌변하는 공식적 제도들의 ‘사전’만을 오류 없는 의미의 이해 및 해석의 틀로 참조하는 데 멈춰서는 안 될 것이다. 탄탄한 문해력(文解力)을 바탕으로 시 자체의 맥락과 거기에 감춰진 뜻들을 동시에 파악하여 연구자와 독자의 동의를 구하는 언어의 모험자이자 항해자로 나서는 용기가 절실한 까닭이 여기 있다.

셋째, 엮은이는 「작가 연보」를 통해 그동안 발행된 선집과 전집의 서지를 정확하게 밝혀두었다. 이 정보는 오상순 시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독자대중과 연결되어 왔는지를 살펴보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공초 오상순 전집』에서 오상순 연구의 경향과 흐름, 주제와 방법의 선택과 변화 등을 한눈에 파악케 하는 학술논문과 연구서의 전체 목록이 빠져 있어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앞서 밝힌 대로 현재 간단히 확인되는 오상순 연구물은 30여 편에 불과하다. 여기에 더해질 목록이 있다면, 근대(시)문학사, 동인지 『폐허』, 식민지 조선의 낭만주의에 대한 몇 편의 연구와, 엮은이가 전집을 편찬하며 작성했던 오상순론 3편이 해당될 것이다. 만약 그간의 오상순 연구가 모두 기록된 총목록이 작성되기에 이른다면, 그것은 타자의 글쓰기와 비교되는 엮은이의 연구 관점과 태도, 이념과 방법, 이후의 가능성과 지향점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대차대조표’의 역할도 감당하게 될 것이다.

3. 『공초 오상순 전집』이 학술연구에 미친 영향과 가능성

『공초 오상순 전집』에 실린 「책머리에: 전집 발간의 의의」와 「해제: 공초 오상순의 작품세계와 활동 영역」은 전집 편찬의 과정에서 의미 깊었던

사항과 작품 세계를 단순히 정리한 글쓰기가 아니다. 두 편의 글은 전집 편찬 과정에서 작성했던 학술논문 세 편을 시의적절하게 응축하고 정리하여 연구자와 대중독자들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핵심적 요소를 가려 뽑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그러므로 열정의 위은이를 넘어 지성의 연구자로서 이은지 박사의 날카로운 시선과 목소리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세 편의 글에 새겨진 연구의 성과와 그것의 새로운 가능성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그것들을 발표순으로 정리하면 ① 「1920년대 오상순의 예술론과 이상적 공동체상(像)」(2015), ② 「오상순 발굴작 키워드로 읽기: 불교, 조선 기타」(2015), ③ 「증보(增補) 작품연보를 통해 본 1950년대의 오상순」(2020)이 된다(자세한 서지는 '참고문헌' 참조). 세 글에서 성과와 가능성이 인상적인 부분 몇 곳을 짚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오상순이 꿈꿨던 예술가의 목표에 대한 재정립이다. 이은지 박사는 그간 1920년대 오상순 시학의 핵심어로 소환되던 '허무'와 '폐허' 못지않게 중요한 개념으로 '자연'을 새로이 호명했다. 이 입론은 시인이 예술의 궁극적 목표를 '생명의 비밀' 간파하는 것 또는 '자연 법칙의 핵심'을 찌르는 것에 두었다는 사실에 대한 재인식에서 가능해진 것이었다. 요컨대 오상순은 인간의 창조적 작업의 핵심이 생명 탄생의 근본원리를 체득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생산 활동에 존재한다고 굳게 믿었으며 그것의 시적 현실화를 위해 열띤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다(①, p. 261). 아무려나 '자연'은 '신'(종교)과 더불어 "생명의 비밀"과 "영원회전"의 원리를 보여 주는 핵심 지평이라 할 수 있다. 오상순과 구상이 저 네 요소를 새로운 세계 창조의 원동력으로 삼았음은 최초의 시선(1963년판)과 시 전집(1983년판)에서 뚜렷이 확인된다. 왜냐하면 "첫날 밤"이라는 부제 아래 '해바라기'와 '대추나무', '영원회전'과 '생명', '첫날 밤'과 '새하늘이 열리는 소리' 등을 주제로 삼은 여러 시들을 함께 배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오상순의 시와 사상이 아나키즘과 연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도 매우 흥미롭다(①, pp. 265-268). 이 가설은 공초가 1920년대 한·

중·일 문인들의 관심 요소로 떠올랐던 ‘새로운 마을’ 건설 운동에 참여하면서 일본의 ‘시라카바’(白樺)파나 중국의 ‘저우쭈어런’(周作人) 등과 깊이 교류했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제기된 것이다. 오상순의 아나키즘에 대한 관심과 실질적 참여는 러시아 출신의 아나키스트 시인 바실리 예로센코 등과 베이징·톈진 일대를 왕래하며 그 자신이 시 속에서 이상촌으로 묘사했던 ‘어린애의 왕국’이나 ‘장미촌’ 건설에 천착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을 감안하면, 1920~30년대 오상순의 ‘폐허’와 ‘방랑’이 식민 현실에 대한 패배와 좌절의 반영물이 아니라 불우한 현실의 초극에 요구되는 ‘생명의 비밀’을 간파하기 위한 적극적 니힐리즘의 일환이었음이 새롭게 환기된다.

셋째, 그간 오상순 연구에서 거의 제기되지 않았던 ‘조선적인 것’에 대한 기대와 욕망(②, pp. 238-241) 그것의 구체화로서 조선의 ‘자연’과 ‘민족 예술’, ‘민족생활’의 통합에 대한 의지를 새롭게 발견하고 평가한 것(③, pp. 229-235)도 주목을 요한다. 언뜻 보면 해방 후 오상순의 사유와 상상력은 인류 보편의 ‘생명의식’과 ‘영원한 삶’의 추구에 바쳐진 것처럼 보인다. 이를테면 “태초 생명의 비밀 터지는 소리 / 한 무궁한 생명으로 통하는 소리 / 열반의 문 열리는 소리 / 오 구원의 성모마리아—”(「첫날밤」, 1950)나 “면사포 벗은 우주의 본면목(本面目)이여 / 복면 벗은 세계의 적나체(赤裸體)이여 / 가면 벗은 만유의 노골상(露骨相)이여 / 자유해방한 자아의 진실상(眞實相)이여”(「백일몽」, 1952) 같은 구절이 그렇다.

그러나 이토록 아름답고 신성한 ‘이상 세계’의 단초는 “항아리와 더불어 삶의 꿈을 어루만지는 조선 여인의 마음”을 부제로 취한 「항아리」(1950)에서 벌써 찾아진다. “조선의 하늘빛과 젖빛 구름”, “그윽한 고령토와 조선의 꿈”, “창궁에 물결치며 달리는 산맥”, “대지에 굽이치며 흐르는 장강(長江)”, “춘하추동 사시의 눈부신 조화”, “찬란한 일월성신 우렁찬 선율”, “이 자연 이 조화의 맥박과 호흡”은 “조선 항아리”의 완미한 본질이자 다른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는 ‘절대미’다. 「항아리」에서 「첫날밤」, 「백일몽」으로

나아가는 흐름을 따진다면 '조선'의 꿈과 선율, 그리고 아름다움에서 세계 보편의 생명과 신성, 그리고 자유해방으로 확장, 심화되어 감을 알게 된다.

문제는 지금까지의 오상순 문학 연구에서 시인의 시적 사유와 상상력이 '조선적인 것'에서 '우주적인 것'으로 급속히 변전되어 간 까닭과 배경 등에 대한 깊은 천착과 예리한 분석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서평자는 오상순의 관심 전환이 해방과 분단, 전쟁과 전후 복구 등을 거치며 더욱 절실해진 이상적인 '나라 만들기'와 그것에 상응하는 보편적이며 개성적인 '민족문화' 및 '민족예술'의 건설과 관련이 있지 않은가라는 정도의 짧은 생각을 떠올려 봤을 따름이다. 이제 그 미완의 과제를 해결해 나갈 자료와 토대가 『공초 오상순 전집』의 발간을 계기로 상당 부분 갖춰졌다는 판단이다. 이은지 박사를 필두로 오상순 시학에 매료된 여러 연구자의 명석한 연구와 분석이 뒤따라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구상 편(1988), 『현대한국의 초인 시인 공초 오상순』, 자유문화사.
- 구상(1984), 「우리 어디서 만나랴」, 정공채, 『공초 오상순 평전: 우리 어디서 만나랴』, 백양출판사.
- 구상 편(1983) 『(공초 오상순시전집) 아시아의 마지막 밤 풍경』, 한국문화사.
- 김민지(2021), 「1920년대 한국 현대시의 정동 시학: 황석우, 오상순, 이장희 시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1-217.
- 김용직(1986), 『한국근대시사』(상), 학연사.
- 김용성(1983), 「'아시아의 밤'을 노래한 선개, 공초 오상순, 신경림 외, 『한국의 피짜들』, 영연문화사, pp. 208-221.
- 박현수·홍현영(2015), 「1920년대 초기 『조선일보』 「문예란」 연구: 발굴과 위상의 구명」, 『민족문학사연구』 57호, 민족문학사학회, pp. 155-227.
- 오상순(1963), 『공초 오상순 시선』, 자유문화사.
- 이승하(2020), 『진정한 자유인 공초 오상순』, 나남.
- 이은지(2022), 「책머리에: 전집 발간의 의의」, 오상순, 이은지 편, 『공초 오상순 전집』, 소명출판.

- 이은지(2020), 「증보(增補) 작품연보를 통해 본 1950년대의 오상순」, 『민족문학사연구』 73호, 민족문학사학회, pp. 209-244.
- 이은지(2015), 「1920년대 오상순의 예술론과 이상적 공동체상(像)」, 『상허학보』 43집, 상허학회, pp. 247-284.
- 이은지(2015), 「오상순 발굴작 키워드로 읽기: 불교, 조선 기타」, 『근대서지』 11호, 근대서지학회, pp. 233-255.
- 이철호(2006),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과 종교적 자아 담론: 영(靈), 생명, 신인 담론의 전개 양상을 중심으로」, 동국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1-190.
- 정공채(1984), 『공초 오상순 평전: 우리 어디서 만나랴』, 백양출판사.
- 조은주(2008), 「1920년대 문학에 나타난 허무주의와 ‘폐허’의 수사학」, 『한국현대문학연구』 25호, 한국현대문학학회, pp. 7-40.
- 최호영(2014), 「아나기 무네요시의 생명사상과 1920년대 초기 한국시의 공동체 문제」, 『일본비평』 11호, 서울대 일본학연구소, pp. 238-273.
- 홍석표(2015), 「예로센코, 노신(魯迅), 주작인(周作人)의 세계주의적 경향과 동아시아 지식인의 사상적 공명」, 『중국어문학지』 53집, 중국어문학회, pp. 221-250.
- 홍성희(2022), 「“상상의 날개”로 땅에 머물기: 오상순 시의 음성주의와 ‘역천’의 상상력」, 『민족문학사연구』 80호, 민족문학사학회, pp. 323-362.
- 朴允姬(2009), 「吳相淳の文学と思想: 1920年代, 東アジアの知的往還」, 京都造形芸術大学 博士論文.